

『韓國語教育研究』(第12号)別刷

ISSN 2186-2044

【寄稿論文】

New Normal 시대 한국어 교육 현장의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

박 기 영

日本韓國語教育学会

2022年9月

# New Normal 시대 한국어 교육 현장의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

박 기영

## 1. 서론

지난 2년간 언어 교육 특히 한국어 교육에서 비대면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급격한 변화와 그 변화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내 한국어 교육 관련 학회들의 학술대회 주제만 열거해 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성은 충분히 확인된다.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제52차 국내학술대회 디지털 다매체 환경에서의 한국어 표현 교육 제31차 국제학술대회 비대면 시대의 국내외 한국어교육의 실태와 전망
이중언어학회	제21차 국제학술대회 온택트시대, 이중언어 교육의 해법을 찾다
한국언어문화 교육학회	제32차 전국학술대회 디지털혁신시대의 한국언어문화교육:교사, 교수법
국제한국어언어 문화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국어 교육의 디지털 전환, 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의 논의들에서 나타나는 거시적인 연구들은 때로는 한국어 교육 현장의 실체를 반영하지 못하기도 한다. 한국과 일본의 한국어 교육 현장도 전혀 다른 조건과 상황에 있으며, 향후 한국어 교육의 변화 방향, 혁신 전략은 큰 틀에서 같을지라도 세부적인 내용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 국내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 좀 더 미시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미시적인 접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비록 한국어 교육 자체는 아니지만)을 포함하여 한국어 교원들이 실제로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을 공유함으로써 일본에서 한국어 교육 현장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New Normal 시대의 한국어 교육의 혁신 전략에 대해 고민하실 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 2.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 학습 공간과 시간의 변화에 대한 대응 혹은 머뭇거림

2020년 2월 13일~15일까지 2박 3일의 짧은 일정으로 일본 치바대학교 동경외국어대학교를 방문하는 출장을 다녀온 것이 필자의 마지막 해외 방문이다. 물론 당시에는 이것이 마지막 방문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지금의 기억으로는 마스크를 쓰고 일본 시내를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다.

2020년 3월 봄학기 시작을 불과 2주 앞둔 때부터 학교와 한국어학당은 코로나 19로 인한 급격한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한다. 개강의 2주 연장, 개강 후 2주간의 비대면 재택수업 실시, 다시 2주 연장으로 총 4주 연장된 재택수업, 이후 1학기 전체 재택수업 실시 결정(서울시립대의 경우, 2020년 4월 22일). 한국어학당도 학교의 방침에 따라 결국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

학습 공간과 시간의 변화가 교수자, 학습자에게 가져오게 된 변화는 매우 컸으나 그러한 변화의 결정 과정 초기에는 약간의 머뭇거림, 혹은 선택의 상황이 있었다.

- 비대면 수업의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영상 녹화? 실시간 비대면 수업?
- 한국어학당의 선생님들은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집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가?

지금 보면 이런 선택 자체가 다소 우습게 여겨질 수도 있으나 당시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학습 공간과 시간의 변화에 대한 일종의 적응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영상 녹화로 수업을 시작했던 어학당도 있고, 바로 실시간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을 시작했던 어학당도 있었다. 어학당의 선생님들이 학생이 없는 교실에 나와 수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은 때로는 어학당이 결정할 문제이기도 했지만, 어학당의 결정과 상관없이 교사 스스로의 선택으로 학교에 나와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선택은 쉼의 공간(집)과 사무 공간(어학당)을 분리하고자 하는 결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기존의 실시간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매우 익숙한 공간인 교실 상황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학습 공간과 시간의 변화에 대한 고민은 그 방향이 반대일 뿐, New Normal 시대에도 계속될 것이다.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며 쌓인 다양한 노하우는 학습 공간과 시간의 변화가 제자리를 찾은 뒤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될 것이다. 다만 국가(혹은 지역)에 따라 혹은 외국어 학습의 경향성에 따라 그 정도 차는 존재할 것이다.

학습 공간과 시간의 물리적인 변화는 실제 한국어 교육의 방법과 내용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 내 한국어 교육 현장과 관련하여 그 영향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3. 무엇이 변했는가? 무엇을 바꾸었는가?

#### 3.1 수업 운영과 교실 활동의 변화로 인한 교육 내용 및 자료의 수정

한국어 교사들은 대면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다양한 교육 자료들과 교육 방법이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그 효용성이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혹은 교재 외의 활동 자료로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배부되었던 자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교실 상황을 전제로 한 자료들이었다. 실물 자료를 배부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짝 활동으로 혹은 그룹 활동으로 연습이나 활동을 시작하면 교사는 수시로 질문을 받고 즉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 전제가 사라지면서 기존의 자료들은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 자료들의 수정 혹은 대체는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용하기 어렵게 된 자료들 대신 다양한 온라인 수업 도구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내에서 퀴즐렛(Quizlet), 카훗(Kahoot), 퀴즈앤(Quizn) 등은 교실에서 이루어졌던 어휘 복습 혹은 어휘 퀴즈 자료를 대신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수업 도구로 사용되었다. 또한 AI 기술을 이용한 챗봇 등도 직접 도입된 경우는 많지 않지만 국가 기관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실험적인 활용을 보고한 연구들도 나타나게 되었다(박정아·이향 2021). 다만 이러한 온라인 수업 도구들은 코로나 19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디지털 매체 형식의 수업 보조 도구들이 코로나 19 이후 그 활용의 폭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효용성을 몸소 체험한 한국어 교육 기관과 교사는 앞으로도 이러한 수업 도구들을 학습 효과의 촉진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할 가

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또 한 가지의 변화는 한국어 교사가 교실 현장을 전제로 사용하고 있던 다양한 교육 활동 자료들의 수정이다. 문법 연습을 위한 자료나 활동지 등을 수정하기도 하고 기존에 교실에서 해 왔던 연습 방식을 온라인 상황에 맞게 변경하기도 한다. 교실 환경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과제 활동 중의 하나는 역할 놀이(role play) 일 것이다. 대부분의 역할 놀이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맡은 역할의 기초 내용이 적혀 있는 카드를 나누어 주고 그 카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교실 현장에서 이러한 역할 놀이는 반 전체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몇몇 그룹으로 나뉘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교사는 이 모든 활동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개입하거나 피드백을 주거나 활동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에서 학습자들에게 카드를 나누어 줄 수도 없으며 교사의 피드백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역할 놀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더 구체화해야 하고 학생들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의 보충이 이루어지게 된다. 교사는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사의 피드백이 부족한 가운데 학생들끼리 역할 놀이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자료를 수정, 보충해야 한다. 한국어 수업 현장에서 볼 때 비대면 수업을 시작하면서 사실 가장 많이 이루어진 수업의 변화는 이러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한다.

또 한 가지 국내 한국어학당의 변화는 아마도 기존 문화 수업의 미시행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온라인 문화 수업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에는 한국어학당들이 교육과정 속에 포함하고 있는 문화 수업을 대체할 수 없어 대신 한국어 수업을 그대로 진행하였으나 꽤 발 빠르게 대응하여 온라인 문화 수업으로 대체하여 진행하였다. 온라인 문화 수업은 K-pop 댄스 교실, 한글 캘리그래피, 수제 도장 만들기 체험, 종이접기(한복, 복주머니), 민화·풍속화 그리기 등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직접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 보거나 그려 보는 수업이 주를 이루었다. 일부 문화 수업은 수업 재료를 구매 후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전달해 주거나 배송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따로 준비 재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 온라인 문화 수업을 다시 한국어학당의 교육과정 속에 어떤 형태로든 유지할 수 있었다.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문화 수업의 도입은 해외에서도 더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2 평가 내용, 방식의 변화

비대면 수업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평가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한다. 한국 내의 한국어학당의 경우 온라인 성취도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카메라의 각도, 손의 위치 등을 지시하는 시험 안내문을 따로 작성하기도 하고, 네트워크 상황을 고려하여 문항의 수를 줄이기도 하였으며, 듣기와 말하기 평가를 혼합하거나 듣기와 쓰기 평가를 혼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프로젝트 수업이나 수행 중심의 평가 등 대안적인 평가 방법들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평가 방식이 비대면 수업에서 일반적인 주류를 이루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면 수업에서 이루어졌던 평가의 방식이 공정성과 보안의 문제없이 비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았으며, 학습자가 처한 네트워크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문제로 인해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는 아직도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3 한국어 교사, 한국어 학습자의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처음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진 2020년의 봄학기과 2021년 가을학기를 비교해 보면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의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은 굳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지 않아도 분명히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비대면 수업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과 수업 도구들을 마련하고 사용법을 익히면서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시작했었고 실제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교사도 학습자도 비대면 수업의 방식에 익숙해졌고 오히려 비대면 수업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비대면 수업이 가진 장점들을 기존의 수업에 어떤 식으로 결합시킬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 국내의 한국어학당들 가운데는 현재 오프라인 한국어 과정과 온라인 한국어 과정을 모두 설치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온라인 한국어 과정은 대면 수업이 일반화되는 시기가 되더라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오프라인 한국어 과정, 온라인 한국어 과정, 오프라인+온라인 한국어 과정이 함께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4. 결론을 대신하여: 앞으로의 방향

지금까지 코로나 19 이후 한국어 교육에서 생긴 다양한 변화들을 한국어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들이 한국어교육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단편적인 언급을 더해 보았다.

에듀테크 기술의 발전이 외국어 학습과 결합하여 개발된 다양한 학습 도구들과 어플리케이션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존재했었고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코로나 19는 짧은 시간에 이러한 학습 도구들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한 영역에서 제공해 준 셈이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국내에서는 이러한 학습 도구들이 온라인 한국 과정에서 계속 사용될 것이다. 또한 국내 한국어 교육 지원 기관들인 세종학당재단과 국립국어원 등은 다양한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다만 앞으로 고민할 것은 이러한 한국어 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 도구들과 학습 콘텐츠, 교수 방법과 교수 자료 등이 얼마나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어떠한 비용의 지불도 없이 한국어 교육과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이 한국어 교사나 학습자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공유되어 한국어 교육의 생태계를 전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실험적인, 혁신적인 한국어 수업에 대한 정보 교환과 교류 또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한국어 교육자들도 더 많은 학술 교류의 기회를 만들고 그러한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한국 국내의 한국어 교육과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서주원(2021), '비대면 시대의 미주지역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제31차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11.
- 김지형(2021), '비대면 시대의 한국어교육의 전망과 과제', <2021 세계 한국어 한마당 9분과발표 자료>([https://www.wockl.org/assets/pdf/발표09\\_1\\_김지형.pdf](https://www.wockl.org/assets/pdf/발표09_1_김지형.pdf))
- 박충식(2021), '세종학당 온라인 교육 보급 정책의 실제', <2021 세계 한국어 한마당 9분과발표 자료>([https://www.wockl.org/assets/pdf/발표09\\_5\\_박충식.pdf](https://www.wockl.org/assets/pdf/발표09_5_박충식.pdf))
- 박정아·이향(2021), '한국어 교육에서의 챗봇 빌더 활용 방안', <제52회 국내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01-124.
- 金庚芬 趙英恩(2021), '明星大学韓国語教育の遠隔授業実践報告', <明星大学全学共通教育研究紀要>第3号, 41

-56.

金銀中 Lee, Jinbae(2019), '外国人学習者を対象とした韓国語教育に関する研究-日本における世宗学堂を事例として-', <創価大学大学院紀要>第40集, 117-152.

山内真理(2021), '「ニューノーマル」時代の外国語教育・授業・学習の「サイクル」をめぐって-', <千葉商科大学紀要> 第58巻第3号, 51-86.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 서울시립대)

pky1020@uos.ac.kr



---

## 韓国語教育研究 (第12号)

2022年9月15日 発行

---

発行者 文 嬉眞

発行所 日本韓国語教育学会

〒577-8052 大阪府東大阪市小若江3-4-1  
近畿大学 国際学部 酒匂康裕 研究室気付

編集者 『韓国語教育研究』編集委員会  
文慶喆、李相穆、柳朱燕、金珉秀、  
金昌九、權恩熙

印刷所 株式会社 仙台共同印刷

---